

2월 26일(화)

한-영국, 예술적 상상, 기술로 꽃피우다

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예술과의 협력

모더레이터 **이대형**(현대자동차 아트디렉터)

개회사	10.00	박종관 (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)
환영사	10.10	Sam Harvey (샘 하비 ; 주한 영국문화원 원장)
Session 1 예술과 기술의 만남	10.20	Emma Hughes (엠마 휴즈 ; Limina Immersive) 임학순 (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)
Session 2 예술&기술 융합 생태계	11.10	Ben Neal (벤 널 ; Birmingham, Open Media) Laurence Hill (로렌스 힐 ; Brighton Digital Festival) 이기형 (아시아문화원 ACT팀 팀장) 이수영 (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) 장지영 (국민일보 기자)
질의응답 (12.50)		
휴식 1시간 (13.30)		
Session 3 예술&기술 협업을 통한 제작	14.30	Mark Atkin (마크 앳킨 ; Electric Dream) Tom Higham (툼 하이엄 ; York Mediale) 여운승 (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) 정문열 (서강대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/영상대학원 교수)
한-영국 예술가 사례 발표	15.50	Alexander Whitley (알렉산더 휘틀리) Philharmonia Orchestra (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)
휴식 10분 (16.20)		
질의응답 (16.30)		